

지역 매 아리

정읍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 예방 '노란 신호등' 설치

정읍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통행이 많은 서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신호등을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영무예다음 아파트 입주로 인해 차량 통행이 증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또 등굣길 어린이들이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노란 신호등은 기존 검정색 신호등보다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해 속도 감속을 유도하고 집중도를 해 보행자의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을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앞에 노란 신호등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신호 운영은 경찰서, 서초등학교와 협의해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치공사 기간 동안 불편함을 참아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노란 신호등이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하게 해 보행자의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국가유산 자치단체 업무협약 체결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경남 하동군에서 개최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부안군 대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을 보유한 16개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모여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결성하고, 국가유산의 가치 재조명과 국가유산 브랜드 육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안군을 비롯하여 하동군, 제주특별자치도, 완도군, 구례군, 담양군, 금산군, 울진군, 울릉군, 의성군, 보성군, 장흥군, 남해군, 신안군, 무안군, 광양시 등 16개 자치단체가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 군수는 앞으로도 국가유산 자치단체 간 정보교류를 통해 상호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상품 개발·판매 등에 활용해 지역소득 창출과 국가유산 가치의 홍보 및 정책반영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2017년 유유동 양잠농업이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제8호로 지정되었으며,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은 뽕나무 재배에서 누에 사육에 이르는 전통적 양잠농업 방식이 전승되고 있는 점과 유유동만의 독특한 전통잠실이 마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는 점 등이 그 가치를 인정받은바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이 21일 오전 10시30분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 개막식을 열었다.

차별과 편견없는 화합의 축제

고창군립체육관서 전북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 개최... 오늘까지 20개 종목 겨뤘

아름다운 동행의 소통과 화합의 축제,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가 고창군립체육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21일 고창군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와 송하진 전북도지사(전북장애인체육회장)와 선수·임원진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을 열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서 웅비하는 천년전북'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21~22일 이틀간 도내 14개 시·군 장애인 체육인들이 20개 종목(육상, 배드민턴, 보치아, 불림, 게이

트볼, 골볼, 론볼, 역도, 사격, 좌식배구, 수영, 탁구, 휠체어 테니스, 파크골프, 줄다리기, 고리걸기, 팔씨름, 디스크골프, 족구, 미니탁구)에서 그동안 같고 다투는 기량을 겨루게 된다.

앞서 고창군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장 진출입 경사로 공사를 진행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관리기관과 단체 등과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화합의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려하고 있다.

고창군은 장애인 누구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의식을 높이고 신체·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선수 노래자랑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대회사에서 "경기 결과를 떠나 모두가 최고의 선수이며 장애라는 신체적 제약과 사회의 벽을 뛰어넘은 진정한 승리자"며 "스포츠를 통한 도전과 성취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화합의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자기의 예술성 빛을 발하다

고창 동곡요 3대 요장 유춘봉 명인 '지역명사'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9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여행' 사업에 동곡요 3대 요장 유춘봉 명인이 선정됐다.

2015년 시작된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여행은 지역의 역사와 삶을 함께한 명사들을 스토리텔러로 발굴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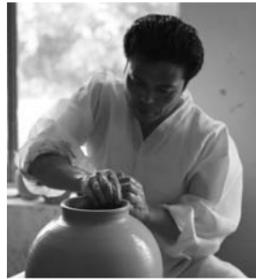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20명이 선정된 가운데 올해는 6개 지역 6명이 최종 '지역명사'에 이름을 올렸다.

고창군에선 고창자기의 명맥을 잇고 있는 유춘봉 명인이 선정됐다. 유 명인은 한국 청자의 최종 주자 최남성(崔南星) 선생을 사

한 유길상(柳吉相 1924~1952, 동곡요 1대 요장) 선상에 이어 선친인 유하상(柳夏相 1928~1990, 동곡요 2대 요장) 선생의 가업을 이어받아 3대 요장으로 45년간 전통자기 재현에 몰두하며 고창자기의 맥을 잇고 있다.

유춘봉 명인은 '흙과 불, 영혼'을 주제로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창의 도자역사이야기와 함께 도묘지 둘러보기, 도예체험프로그램 등을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유춘봉 명인은 "지역 명사로 선정되며 개인적인 기쁨도 크지만, 고창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길을 열었다"며 "이를 계기로 고창 자기의 예술성과 전통성이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춘봉 명인은 지난해 9월 한국예술평단체총연합회의 명인인증위원회 최종 심사 등 4개월간의 심층적인 심사를 거쳐 명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고창=김영식기자

선진화된 노인주거복지 실현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건립

정읍시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도심지역 노인들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한다.

정읍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국비 107억원, 시비 43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부터 11층까지 실버복지관과 공공주택 88세대를 건립한다.

지난 2017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 정읍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마치고 5월 말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가유공자와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주택 공급에만 중점을 둔 기존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다.

또한, 건립비와는 별도로 입주 후 5년간 매년 2억5천만원씩 모두 12억5천만원의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고령자인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해 비상콜과 물리치료실, U-헬스케어실, 낮낮이조절 세면대, 장애물 없는 건축 등 안전과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주택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통해 선진화된 노인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민과 어르신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여름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

정읍시가 오늘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접수받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겨울철 난방비만 지원하던 기존 에너지 바우처와 달리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 냉방비 지원이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화귀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로 지원자가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여름 바우처는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가구 이상은 1만1500원을 받을 수 있다. 겨울 바우처는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이상은 14만5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수혜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전북 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부안군은 전복도와 함께 전북 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를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착기반이 약한 저소득 기 취업 청년의 생활보조 지원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기준 만 18세 이상에서 만39세 이하 청년(1980년생~2011년생)으로 청년 중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 중 유사사업 참여자와 가구

중위소득 120% 초과 자 등은 제외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전북도청 및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6월3일부터 6월 16일 24시까지 전북 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 사이트(td.j.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우편, 방문, 모바일 등 접수는 불가능하다. 부안군은 접수된 신청자들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종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청년들은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분기별 활동상황 확인 후 지원한다.

/부안=김석진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